

유행소식

SK (주)

친환경 용제 '엑셀솔 670' 개발

SK주식회사(대표 신현철, www.skcorp.com)가 유해물질인 벤젠과 노말렉산을 획기적으로 저감한 전자부품 세정용 용제 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친환경 세정용 용제인 '엑셀솔(EXELSOL) 670'은 SK(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 수소첨가공정과 연속식 흡탈착공정을 통해 벤젠을 무해한 성분으로 바꾸고, 노말렉산을 흡착해냄으로써 기존 세정용 용제에 다량 포함돼 있는 두 가지 유해성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제품이다. 벤젠은 발암성 물질로 잘 알려져 있고, 노말렉산은 정부에서 특정유해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신경장애 유발 성분이다. 기존에 벤젠을 제거한 제품은 출시된 상황이지만, 노말렉산까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저감한 제품은 '엑셀솔 670'이 처음이다. 기존 세정용제의 경우 노말렉산의 비율이 30%가 넘어서지만 SK(주)는 1% 이하로 비율이 저감된 '엑셀솔 670'을 출시한다는 계획. SK(주)는 지난해 6월 본격 개발에 착수해 12월 시제품을 내놓은 상황이며, 3월부터는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 등 전자부품 세정용으로 사용되며,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 시장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LCD 패널 등 전자업체 제품으로도 용도가 확대될 전망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상품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SK(주)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세정용 용제의 국내 시장규모는 50~60억원 정도이지만, 향

후 제품의 용도 확대, 해외시장 개발 등을 통해 규모가 한층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K기술원 화학연구소장 최선 상무는 "산업현장에서 노말렉산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작업자들이 하반신 마비증세를 나타내는 등 유해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 및 친환경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중심 글로벌리티' 활동 강화

SK그룹은 경영 화두인 성장과 글로벌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강력하게 추진중인 '중국 중심의 글로벌리티 제고'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그룹 및 각 계열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중국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SK는 이미 차이나 사업지원센터를 만들고, 중국사업 담당 임원들을 승진시켜 전진배치 하는 등 시스템을 갖춘데 이어 최태원 회장이 중국사업 집점을 위해 직접 중국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SK가 이렇게 중국사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그룹 및 각 사 단위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리티 제고가 필수이며,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해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10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있었던 CEO세미나에서 '중국 시장은 더 이상 수출 시장이 아니라 내수 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각 계열사 CEO들이 합의한 내용을

윤활소식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K는 중국사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 초 조직개편을 통해 해외협력단 산하에 차이나사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중국사업 개발 및 코칭 기능을 담당토록 한 바 있다.

SK텔레콤도 올 초 조직개편을 통해 신규사업부문내에 중국사업을 본사차원의 지원조직인 중국 COE팀을 신설하였고, SK네트웍스는 중국 지주회사 설립, 무역부문내 중국본부 확대에 이어 지난해 글로벌사업추진실을 신설하는 등 계열사별로 중국사업 인프라 구축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중국 사업의 글로벌리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및 중국에서 20여명의 중국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올 초 신입사원 교육을 거쳐, 각 사별로 배치를 완료하기도 했다.

SK는 이 같은 중국 사업 강화에 필요한 내부기반 확보와는 별도로 현장 중심의 글로벌리터 제고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층의 현장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태원 회장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은 지난 3일부터 약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현황 점검과 방향성 제시, 임직원 격려 등 중국사업 강화에 필요한 활동에 직접 나서고 있다고 SK는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의 이 같은 중국 현지에서의 현장 경영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성과가 나올 때까지 앞으로도 자주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SK측은 덧붙였다.

한편, SK는 지난 2001년 상하이에서의 CEO 세미나를 통해 중국기업 SK를 건설하

기로 중국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중국기업 SK'를 중국 사업의 글로벌리터 수준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GS칼텍스(주)

소비자 불만 '척결' 선언

GS칼텍스가 소비자 불만의 예방과 해소에 앞장선다.

GS칼텍스가 소비자 불만의 예방과 해소에 앞장선다.

GS칼텍스(대표 : 허동수 회장)는 2일 국내 기업에서는 처음으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3월부터 본격 실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CCMS :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이란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생 가능한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신속한 사후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캐나다,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이다.

GS칼텍스는 휘발유 및 경유 등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등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의 불만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달 28일 허동수 회장이 전 임직원에게 자율관리 방침을 천명하며 본격추진 되었다.

아울러 세부적인 실행을 위해서 허동수 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정유영업본부장 나완배

유통소식

사장을 자율관리자로, 마케팅개발실을 사무국으로 선정하고, 기존의 조직별 소비자 불만처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실행에 발 벗고 나섰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에 맞춰 각종 자율관리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교육을 통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신속한 사후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허동수 회장은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의 실행 목적은 소비자 지향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다."고 말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성숙한 기업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GS칼텍스는 지난 1993년부터 '고객불만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해 왔으며, 1997년에는 '윤리규범'을, 2001년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의 토대를 마련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번 CCMS 도입을 계기로 소비자 지향적인 기업문화에 한 발 앞서나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6월 GS칼텍스, 유한킴벌리, 신세계 등의 기업과 학계, 시민단체, 사업자단체, 법조계 및 소비자보호원 등이 참여하여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 (위원장 허동수)를 출범시켰으며, 여기에서 의견을 모아 지난해 9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을 확정, 공포하였다. 이후 실무위원회에서 '표준 CCMS 실행지침서'를 만들어 각 기업에 실행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주요 참여사별로 실행지침서 제작 및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S-오일(주)

온산지역 무공해 쌀 생산지원

S-Oil은 19일 울산시 울주군과 「2006년도 무공해 쌀 생산약정서」를 체결하고, 이 지역 농민들이 생산할 오리농법 무공해 쌀 전량을 현금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Oil은 올해 온산지역의 51농가가 9만5천여평의 논에서 오리농법으로 경작한 쌀 전량(약 4,440가마, 40kg기준)을 현금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친환경 무농약쌀 인증을 받은 「상복오리쌀」의 시장가격과 동일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관계자는 "농업시장의 개방확대와 정부의 추곡수매제도 폐지 등 어려운 농업경영 여건하에서 지역 농민들이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은 무공해 쌀 생산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유일한 대안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공해쌀 생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Oil은 2002년부터 지역 농민들에게 오리농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오면서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으며, 쌀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작년 정부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에는 오리농법 경작면적이 작년에 비해 약 77% 늘어난 9만5천여평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앞으로도 무공해 오리농법 쌀 경작면적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유 브랜드로 정착되어 높은 시장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온산지역 농민을 지속적으로 도와 나

윤활소식

갈 예정이다.

한편 S-Oil은 무공해 쌀 전량 구매와는 별도로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해 이 지역에서 생산된 일반 추곡도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구입해 오고 있다.

(주) 한국발보린

자동차용 케미컬 제품 런칭!

한국 발보린은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새로운 각오로 2006년 부터 자동차용 케미컬 시장에 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의 일부 제품 수입 판매와는 다른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본격적인 국내 마케팅 활동을 할 계획 입니다.

우선 발보린 아시아 지역을 이끄는 호주 발보린에서 8종의 자동차 케미컬 완제품을 수입하여 지난 팀 발보린 행사 시의 제품 소개 및 교육을 시작으로 5월 부터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입 판매하는 제품은 연료 계통 제품으로 가솔린 인젝터 클리너, 디젤 인젝터 클리너 2종과 엔진 관련 제품으로 스탱 스톱 크, 엔진 트리트먼트, 엔진 스탱 리크 등 3종, 라디에이터 관련 제품으로 라디에이터 부식 방지제와 부동액 기능 향상제 그리고 기능성 제품으로 오토 미션 쉘 복원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Product'란의 '차량관리용품'란에 가시면 기존의 케미컬 제품과 더불어

새로 런칭한 8종의 제품과 소개를 보실 수 있을 것 입니다

한국 발보린은 향 후 고객의 수요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각 종 케미컬 용품, 왁스 용품 등의 차량관리 용 케미컬 제품군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보린 제품을 아껴 주시는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고 바랍니다.

제14회 팀발보린 행사 개최

영업 활성화와 발보린 본사 및 대리점간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매년 개최해온 팀 발보린 (Team Valvoline) 행사가 올해로 14번째를 맞으며 5월 12~13일 양일간 수안보의 사조리조트에서 개최 되었다.

약 17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여 우수 영업사원 표창, 발보린에서 한국 시장에 새로 소개하는 케미컬 제품에 관한 기술 교육, 대리점의 본사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였고 대리점 대항 축구 등의 결속력 강화 행사 팀발보린의 밤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대리점 및 고객사 임직원들과 본사 직원들간의 벽을 허물고 하나되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

제6회 국제시스템 인증컬퍼런스 통합 경영 시스템 운영사례 발표

(주) 한국발보린 품질관리부 이영철 부장은 2006년 5월 19일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 (KSA) 주최로 열린 제 6회 국제시스템 인증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오후 세션 발표시간에 연사로 참가하여 당사의

윤활소식

ISO/TS 16949 및 ISO 14000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이 행사는 오전에는 국제표준시스템 경영상 (ISSMA)의 시상식과 기조 강연, 특별 강연이 있었으며 오후에는 품질경영, 환경경영, 지속가능 경영, 안전보건/식품경영 및 통합경영 등 5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발표를 가졌다.

이영철 부장은 이 발표를 통해 산업 현장의 실무자로서 통합 경영 시스템에 의한 설계한 당사의 실제 시스템 구축 사례를 소개했다.

이영철 부장은 1991년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품질관리 및 개발업무의 책임자이며 내연기관용 윤활유 조성물 개발(2000) 및 수용성 방음, 방청 코팅제 제조 방법 개발(2005)등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세계 마케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범우는 지난 2004년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금속가공유 분야 품질의 최고봉을 인정받았으며 이미 지난해부터 'I-TOP 혁신운동'을 전개해 중소기업부문 국제표준시스템경영상(ISSMA)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 11월에는 전사적자원관리(ERP) 기반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각 계열사의 생산 전과정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혁신, 인사·노무·회계·영업·구매관리 등 전부문의 업무지원 시스템, 경영자정보시스템(EIS) 등을 확립하는 등 기반마련에 힘썼다.

한편 올해로 창립 33주년을 맞는 범우는 지난 12일 범우연합 경영회의를 갖고 13일 창립기념식과 함께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한우리 체육대회'를 가져 결속력을 다졌다. 창립기념일은 5월 10일이다.

범우화학공업(주)

“세계 No.1 꿈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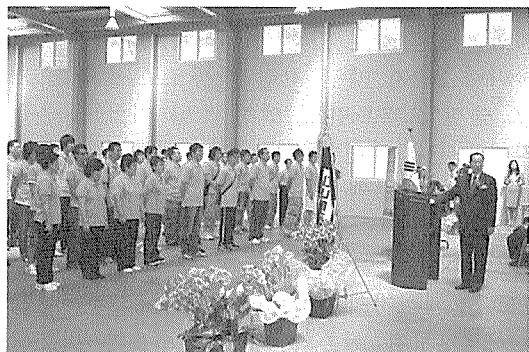
범우화학공업(대표 김명원)이 올해를 '향후 30년을 위한 경영의 해'로 정하고 '30% 전략 품목 세계 No.1'을 전략목표로 세웠다.

연초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조직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나섰다. 회사측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현 상태의 유지가 지속이 아닌 위기"라며 "적극적 실행과 신속한 혁신"을 강조했다.

범우는 또 이를 위해 기술력 우위를 유지하고 시장개척을 통해 일본·중국·인도 등

동아특수화학(주)

창립 33주년 기념식 및 전준식 회장 취임식 개최



윤활소식

동아특수화학 (주)이 지난 5월20일 경기 안성공장에서 창립 33주년 기념식 및 전준식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으며, 우수 임직원과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을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전준식 회장은 “동아특수화학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모든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일심단결하여 구슬땀을 흘려준 노력덕분”이라며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회사 발전과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동아특수화학은 자동차용 부동액과 브레이크액, 와셔액등 윤활유를 전문으로 생산하여 국내 주요 자동차업체와 정유업체, 국방부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철저한 품질관리와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표준협회가 선정한 KS대상 시상식에서 연속 5년간(2001년 ~ 2005년)부동액 KS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회장에 취임한 전준식 회장은 상공부장관 표창(자동차공업발전공로/92년), 대통령 표창(국가발전공로/92년), 철탑산업훈장(중소기업진흥공로/98년)을 수상하는 등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의 역군으로서 최선을 다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셀석유(주)

전직원 '200만시간 무재해'

하중환 한국셀석유(주) 대표이사(사진)가 2일 무재해 200만시간 달성 기념 '안전상(Safety award)'을 수상한다. '안전상(Safety award)'은 한국셀 전 종업원이 200만시간 동안 무재해를 1기록한데 대해 로열더치셀 본사가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셀이 본사로부터 안전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두번째다.

한국셀석유는 지난 4월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무재해 10배수(3450일)'인증패를 수상한 바 있다. 한국셀석유 관계자는 '로열더치셀 본사의 안전관리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에서 무재해 200만 시간 달성은 의미가 크다'면서 전 직원에게 안전 규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앗차 사고(Near Miss), 잠재적 사고(Potential Incident)' 신고 장려제를 도입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요소를 미리 관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셀은 본사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재해 요인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만 24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를 '재해 발생'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입원가료를 하는 경우에만 재해로 간주하고 있다.